

보도	배포시	배포	2024.5.16.(목)
----	-----	----	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	책임자	국 장 이 진 (02-3145-8170)
		담당자	부국장 김정훈 (02-3145-8180)

금감원, 부동산PF 연착륙 방안 관련 시장동향 점검회의 개최

-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.16일(목) 오전 10시 서울 본원, 뉴욕·런던 사무소를 화상으로 연결하여 시장동향 점검회의를 개최
 - 부동산 및 금융시장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발표(5.13일) 이후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

【현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】

- 시장 전문가들은 사업성 평가기준이 명확히 발표됨에 따라 시장이 스스로 옥석을 판별하고 대비하도록 하여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 - PF 연착륙 방안 발표 이후에도 PF-ABCP는 차환발행이 원활하고, 발행금리도* 안정적인 등 자금시장 이상징후가 없으며,
 - * PF-ABCP 발행금리(A1·3M) (1월중) 4.56% → (3월중) 4.22% → (5월중~14일) 4.02%
 -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지속 보이는 등 전반적인 우리 금융시장은 견조한 모습이라고 평가
 - * 외국인은 6개월 연속 코스피 순매수 중('23.11월~'24.1월 +9.5조원 → '24.2월~5.14, +17.2조원)
 - 다만,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 정리과정에서 일부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건설사 등의 손실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며 세심한 관리 필요성을 언급

【금융감독원장 당부사항】

-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번 대책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PF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하면서 후속조치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빈틈없이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음
 - ① ‘엄정한 옥석가리기’가 PF 정상화를 위한 첫단계이므로, 개선된 평가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엄정히 평가하도록 철저히 관리
 - ② 평가결과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경·공매, 실질적 재구조화 및 정리 등 PF 연착륙 방안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
 - ③ 신디케이트론 등 민간 차원의 수요기반 확충과 재구조화·신규자금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의 철저한 준비 및 조속한 실행
 - ④ PF시장 참여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5월 중 건설업계와 추가 간담회 추진
 - ⑤ PF에 민감한 금융회사별 건전성 및 유동성 상황을 정밀 분석하고 PF-ABCP, 건설채 발행·상환 및 금리 동향 등을 밀착 모니터링
- 마지막으로,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뉴욕 IR 준비과정에서 국내 PF 문제에 대해 해외 투자자들도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하며,
 - 선진국들도 고금리 상황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인한 부동산 금융의 위험성 평가 및 대응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
 - 앞으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해외의 신뢰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철저한 현장 관리를 당부하였음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